01□□□(□□)_□□□□□□16□ 14. 2. 10. □□ 3:19 Page 5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6호 2013.12. pp.5~26.

천안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Utilization Measures of Cultural Heritage Resources in Cheonan

강민희(단국대 강사)

차 례

1. 서론
2. 역사문화자원의 개념과 천안의 실태
3. 천안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3.1. 이기영의 문학공간을 활용한 '민촌길' 조성
3.2. 독립운동사적지를 활용한 관광모델 도출
4. 결론

자기 민족이 처한 시대, 환경,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감정, 호흡, 희망을 떠나서 세계적일 수도 없고 인생을 위한 것일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예술적인 기능성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애국적이라는 편협한 의미가 아니다. 널리 인생을 위한 예술이라는 견지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염상섭, 「시조에 관하여」, 『조선일보』, 1929, 10. 6.

1. 서론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루지만, 기술자와 학습자의 관심이 대상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간의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는 과학과 달리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목적과 가치, 선택과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역사기술이야 말로 국가와 민족을 가늠케 하는 방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역사교육은 역

01□□□(□□)_□□□□□□16□ 14. 2. 10. □□ 3:19 Page 6

사와 역사기술이 갖는 성격을 소급한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기술과 교육은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장기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일어난 한국사교과서 논란은 교과서 검정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사교과서 8종에 대한 검토사유가 "미래세대의 역사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1]

물론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고등학생의 정규교과목이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는 역사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민족이나 국가를 평가하고,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양교육이자, 선조들과 사회가 만든 정신적, 물질적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선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국가정체성과 민족자긍심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인식 확보와 확산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체험을 위주로 하는 역사교육

---

1 2013년 2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전국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5전쟁 발생년도를 모르는 청소년은 23.2%, 6·25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모르는 청소년은 17.8%에 이르렀으며,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은 26%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서울신문에서 전국의 고등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6·25를 북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생생리포트〉(SBS)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가 거리에 걸려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거리인터뷰를 진행했다. 내용은 '3 · 1절'과 '안중근', '야스쿠니 신사', '이완용'의 등의 의미를 묻는 것이었다. 상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질문에 청소년들은 각각 '삼점일절', '도시락 폭탄 던지신 분', '야스쿠니 젠틀맨(靖國紳士)', '일제를 추방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물론 이러한 조사와 인터뷰가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역사의식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수가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역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역설하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심인선 · 김영순, 「경남의 청소년 통일안보의식 실태와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2013. 2.
「고교생 10명 중 7명 "한국전쟁은 북침"—서울신문 · 진학사 공동조사…김구선생 질문에 "어린이날 제정하신 분" 황당 답변도」, 『서울신문』, 2013.03.1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0500038(검색일 : 2013.11.05)

01□□□(□□)_□□□□□□16□ 14. 2. 10. □□ 3:19 Page 7

방안을 모색하고, 자율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자원의 개념과 사례를 살피고, 나아가 천안지역을 대상으로 체험형 역사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역사문화자원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존, 변화되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에 다양한 의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한편 천안은 독립기념관과 유관순(柳寬順, 1902~1920) 열사 유적지,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지, 석오 이동녕(石吾 李東寧, 1869~1940) 선생 생가지 등과 같이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애써온 민족의 국난극복사를 보여주는 유적이 많고, 7·8전투와 마틴거리, 월북문인로 알려진 민촌 이기영(民村 李箕永, 1896~1984)의 문학공간이 자리하고 있어 안보와 민족의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천안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안보의식, 나아가 민족의 정체성과 정신을 누구나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역사문화자원의 개념과 천안의 실태

역사문화자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연구자의 연구목적이나 대상, 시기 등에 따라 유사한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관자원, 역사자원, 근대역사자원, 문화자원, 경제자원, 무형자원"[2] 등 "역사적 공간, 유·무형 문화재, 민속 등을 포함하

2 오세경 외, 「공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전유형 분석」, 『국토계획』 36권 5호, 2001, 227쪽.

01□□□(□□)_□□□□□□16□ 14. 2. 10. □□ 3:19 Page 8

는"[3] 인류의 문화자원이라는 의견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역사문화자원은 과거와 현재에 걸쳐 인간의 각종 활동에서 창조되고 생산된 정신적, 물질적 유산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역사문화관광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인류의 경험과 변천 및 발전과정을 포함하는 인류문화에서 후대에 계승, 상속될 만한 가치가 있는 역사적 유적이나 유물을 관광하는 것"[4]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역사문화자원과 이를 활용한 관광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해당 지역들은 방문객의 흥미를 환기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경관조성, 조경화, 도시상품화는 물론, 문화적,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얻고 있다.

구분	역사적 의미	명칭	내용
국외	전쟁	게티스버그 국립군사공원	· 미국의 노예해방전쟁이 일어난 곳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 각종 조형물을 통해 현장을 재현 ·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쟁에 대한 교육을 실시, 역사인식과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효과 획득 · 홈페이지 : http://www.nps.gov/gett
	식민지 역사	윌리엄스버그시 역사민속촌[5]	· 미국 독립운동이 일어난 곳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 현장을 재현함 · 역사적 사료인 18세기 신문, 사서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판매「전시 · 관광안내소, 호텔, 레스토랑 등과 연계, 종합안내 실현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아우슈비츠 박물관 운영 · 나치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대량학살의 참상을 보여줌 · 인류 문명에 대한 방문객의 통절한 반성을 유도함 · 홈페이지 : http://www.auschwitz.org.pl

3 오재환 외, 「부산지역 문화자원 특성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09, 175쪽.
4 공자원,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 잠재력개발 평가지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1, 33~34쪽.

01□□□(□□)_□□□□□□16□ 14. 2. 10. □□ 3:19 Page 9

국내	전쟁	DMZ 박물관	· 6 · 25전쟁과 휴전선이 갖는 역사적 의미, 이산의 아픔, 군사적 충돌, 생태환경을 주제로 전시 진행 ·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 남북한 화합과 협력의 장으로 기능하고자 함 · 홈페이지 : http://www.dmzmuseum.com
	식민지 역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수감되던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안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 · 과거의 아픔과 극복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자 개관 · 자주독립정신과 자유「평화정신을 기리는 교육의 현장으로 운영 · 홈페이지 : http://www.sscmc.or.kr/
	홀로코스트	제주 4 · 3평화공원	· 4 · 3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자 개관 · 희생자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을 위무하는 추모공간과 진실을 드러내는 기억의 공간 · 현재를 살아가는 유족과 방문객이 과거를 반추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염원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고찰하는 공간 · 4 · 3의 교훈을 되새기고 평화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역사평화교육의 산실 · 홈페이지 : http://jeju43.jeju.go.kr/

〔표 1〕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사례

여행의 패턴이 단순한 관광에서 체험형 여행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여행의 핵심 역시 얼마나 많은 장소를 방문했느냐가 아닌 얼마나 의미 있는 경험을 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와 유물에 대한 이해를 고취할 수 있다는 교육적 측면과 개성적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자원은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천안은 오랫동안 '천하대안(天下大安)의 땅', 혹은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불려왔다. 이는 고려 태조 13년(930) 태조가 천안도독부(天

5 「미국 역사가 숨쉬는 버지니아 "민속촌」, 『조선일보 애틀랜타』, 2013.1.16. http://atlantachosun.org/index.php?mid=search_data&category=70661&page=7&document_srl=103453

01□□□(□□)_□□□□□□16□ 14. 2. 10. □□ 3:19 Page 10

安都督府)를 설치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한 후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로하고자 천안 성거산에 천흥사와 구룡사를 세웠다. 이는 대목아(大木岳, 지금의 목천), 사산(蛇山, 지금의 직산), 탕정(湯井, 지금의 아산)이 미륵(彌勒)이 기거한다는 도솔과 같은 지명을 쓴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미륵은 석가(釋迦) 이후 56억 7천만 년에 도솔천(兜率天)에서 속세로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서 성불하여 석가가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구제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용화세계(龍華世界)는 가난하고 굶주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알려져 있다.[6] 태조에게 천안은 과거 맹주 없는 국경접경지로 백석들이 전란에 대한 불안으로 떨어야 하는 불모지가 아닌, 하늘이 내려준 편안한 땅이 시작될 곳이었으며, 삼국을 통일하여 천하대안을 실현하는 공간이며, 도솔천과 병치되는 이상향이었다.

또한 천안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주도한 지역이자, 이념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이 서린 공간으로 변모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천안은 조국 독립을 위해 투신한 유관순, 이동녕 등의 고향이며, 일제의 폭정 아래 신음하던 농촌 현실을 고발한 작가 민촌 이기영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또한 6·25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로 기록되는 천안 7·8전투의 현장이기도 하다.

공간은 주위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천안 역시 고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질곡을 겪으면서 '천하의 대안', '삼남의 요지'라는 기존의 이미지와 더불어 '충절'과 '호국'의 가치를 더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전술한 정신적 가치와 정체성은 오늘날에도 지역민들에게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이는 천안시 출범 5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선언문을 통

6 표일초, 「미륵신앙과 민중불교」, 한종만 편, 『한국 근대 민중불교의 이념과 전재』, 한길사, 1980, 340쪽.

01□□□(□□)_□□□□□□16□ 14. 2. 10. □□ 3:19 Page 11

해 가늠할 수 있다.

국가안위(國家安危)
목숨일랑 초개(草芥)처럼 버리는 사람
환난상휼(患難相恤)
곡간 열어 남 도울 줄 아는 사람
희노애락(喜怒哀樂)
손, 가슴, 마음을 감동을 일게 하는 천안사람

충절 선비 예의 개척 문화정신
천안역사 정체성 전승
순국선열 호국영령 역사정신
가슴에 묻은 지성인들

—「천안시 출범 50주년 기념 명품도시 천안시민 선언문」 부분

이 선언문에 따르면 천안은 "국가안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땅으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은 곳이자, "역사정신"을 "가슴에 묻는 지성인들"의 땅이다. 그러나 선언문은 집단의 핵심가치와 정치적 노선과 방향, 정당성을 석명(釋明)하기 위한 글이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땅이라는 인식에서 작성되었다고 하는 것 보다, 마땅히 그러한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내지는 가치를 존숭하는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천안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되는 두 시기를 상징하는 역사인물과 사건의 현장이자, 이들 사건을 흠숭하고 나아가 정신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재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01□□□(□□)_□□□□□□16□ 14. 2. 10. □□ 3:19 Page 12

또한 천안은 지역의 정체성과 지향점,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천안이 안서동·유량동·신부동 일대로 이어지는 지역과 병천과 목천 일대는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와 지식인이 배출된 공간이다

하지만 천안시에서는 이상에서 밝힌 역사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천안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관광/여행'의 일정별 코스가 극도로 빈약하다는 사실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천안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 고 있는 코스는 〔표 2〕와 같다.

소요기간	방문지역
한나절	· 터미널(역)→천안삼거리→독립기념관→용화사→터미널(역) · 터미널(역)→독립기념관→유관순열사사적지→터미널(역)
하루	· 터미널(역)→각원사→천안삼거리→독립기념관→유관순열사사적지→터미널(역) · 터미널(역)→천안삼거리→독립기념관→각원사→망향의동산→터미널(역)
1박 2일	· 천안→각원사(청동대좌불)→독립기념관→유관순열사유적지→상록리조트(숙박)→마곡사→계룡산(동학사)→공주(백제유적지)→부여(백제유적지)

〔표 2〕 천안의 문화관광(출처 : 천안시청 홈페이지 http://www.cheonan.go.kr/)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천안의 문화관광 코스는 소요시간에 비해 이동거리가 크고, 방문지역 간의 유기성이 부족하며, 관광코스의 주제가 현저히 부족하다. 이는 체류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방문객들의 흥미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천안 일대의 문화역사유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교육적·문화적·역사적인 가치를 갖춘 기행방안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거리조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01□□□(□□)_□□□□□□16□ 14. 2. 10. □□ 3:19 Page 13

3. 천안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3.1. 이기영의 문학공간을 활용한 '민촌길' 조성

천안시 안서동, 유량동, 신부동 일대는 천안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의 개국 현장일 뿐만 아니라, 민촌 이기영(民村 李箕永, 1895~1984)의 소설을 통해 일제의 가혹한 수탈에 신음하던 당대 농촌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작가가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곳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작가는 호를 '민촌'으로 삼고, 작품에 유량동 일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물론 작품 역시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월북과 그 이후의 행보로 대표되는 이념적인 문제와 작품에 드러나는 지역의 묘사가 부정적이라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7]

하지만 이기영은 심훈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농민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이며, 일찍이 논단으로부터 문학적 가치를 칭송받은 바 있어[8] 연구가 조

7 이기영은 1924년 7월 『개벽(開闢)』 현상공모에 「오빠의 비밀편지」가 입선하여 문단활동을 시작한 이후, 일제의 식민 지배하에 놓여 있는 농촌의 피폐함과 비참함을 파헤치고 그 활로를 모색하는 사실주의적 작품 세계를 추구한 작가이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개벽』, 1925. 5), 「민촌(民村)」(『조선지광(朝鮮之光)』, 1925. 12), 「농부 정도룡(農夫鄭道龍)」(『개벽』, 1926. 1~2), 「홍수(洪水)」(『조선일보(朝鮮日報)』, 1930. 8. 21~9. 3), 「부역(負役)」(『사해공론(四海公論)』, 1931. 9), 「서화(鼠火)」, 「고향(故鄕)」을 각각 『조선일보』에 연재함으로써 당대를 대표하는 농민소설가로 인정받았다.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KAPF)에 가담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제의 대대적인 사회주의문학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두 차례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만주사변(滿洲事變, 1931), 중일전쟁(中日戰爭, 1937),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 1941) 등이 이어지고, 카프를 속박하려는 움직임이 강도를 높임에 따라 「맥추(麥秋)」(『朝光』, 1937. 1), 「아우」(『조광』, 1940. 12) 등을 발표한 후 거의 절필했다. 독립 후에는 월북하여 북조선 문학예술 총동맹의 중앙이원장을 맡아 북한문학계의 주도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땅』, 『두만강』, 『조국』, 『역사의 새벽길』 등 대하장편소설을 집필하여 북한의 김일성 체제 찬양 및 공고화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문학지 『삼천리』는 1936년 4월호에서 "조선문학의 세계적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에 작가 이무영은 "어느 사람의 어느 작품을 어느 나라의 어느 사람의 어느 작품과 비교하느냐"고 반문하면서도 굳이 답하자면 "민촌(이기영), 현민(유진오), (박)화성, (이)효석, 춘원(이광수), (김)동인, (염)상섭"이라고 말한다. 이 문답을 통해 1930년대에도 우리문단이 '세계문학'을 동경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소설가 민촌 이기영이 1930년대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대답이 이무영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기영의 대표작 『고향』이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근대화에 따라 붕괴되고 재편되는 농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문학적 · 문학사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01□□□(□□)_□□□□□□16□ 14. 2. 10. □□ 3:19 Page 14

속히 개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기영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아산시 배방면에서 태어나 출생 직후 일가식솔이 천안읍 안서리를 거쳐 북일면 중암리에 정착했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그는 상리학교(現 천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립영진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웠으며, 타지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천안호서은행지점에서 3년간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소략한 내용이지만 이상을 통해 이기영은 유소년기와 청년기를 천안에서 보냈고, 정신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한편 이기영은 자신이 자란 마을을 "근 백호 되는 세 동리에 기와집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제 땅마지기를 가지고 추수해 먹는 집이 없"는 상민(常民)들이 모여 사는 민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견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자신의 호를 '민촌'이라고 정한 데에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상당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이기영은 가족과 함께 살던 유량동에서 대표작 『고향』을 집필하기도 했는데, 인근의 마을이 작품배경으로 아래와 같이 드러나 있다.

> 태조봉골짜기에 나오는 물은 향교말을 안고 돌다가 동구 앞에 버들 숲 속을 뚫고 흐르는데 동막골로 넘어가는 실뱀 같은 길이 개를 건너 논둑 사이로 요리조리 꼬불거리며 산 잔등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 길가 내뚝 옆에 늙은 상나무 한 주가 마치 등 고분 노인의 지팡이를 짚고 거기에는 언제든지 맑은 물이 남실남실 두던을 넘어 흐른다
>
> —이기영, 「민촌」, 『가난한 사람들』, 푸른사상, 2002, p.63.

인용된 부분을 통해 「민촌」의 배경이 천안시 안서동의 태조산과 인근의 유량동 일대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향교말'은 유량동에 위치한 천안향교 주변 마을로, 이 지역은 지금도 '향교말' 또는 '교촌리'로 불리고

01□□□(□□)_□□□□□□16□ 14. 2. 10. □□ 3:19 Page 15

〔그림 1〕 이기영이 작품을 집필한 성불사

있다. 또한 「민촌」에서는 이 마을을 "자래로 상놈만 사는 민촌으로 유명한 곳"이자 "어쩌다 못생긴 양반이 이 동리로 이사를 왔다가는 그들에게 둘려서 얼마를 못살고 떠나고 떠나"[9]는 곳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내 문학을 길러 준 곳, 요박한 천안뜰 뒤(상)」과 일치한다.

한편 1933년 11월 15일부터 1934년 9월 21일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 「고향」은 이기영의 대표작이자, '리얼리즘의 승리'[10]라는 당대의 평가는 물론, 후대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1930년대 소설의 정점'[11]으로 평가받았다. 이 작품 역시 천안의 농촌마을이 무대가 된다. 특히 앞서 살핀 「민촌」의 공간인 천안향교 일대에 한정된다면, 『고향』은 유량동을 비롯하여 신부동과 안서동 일대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유형의 답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작품에 제시된 마을이름은 '원터'인데, 이곳은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김희준이 동경에서 내온 제가 얼마 되지 않았다. 오 년 동안에 고향은 놀랠

9 이기영, 「민촌」, 『가난한 사람들』, 푸른사상, 2002, 70쪽.
10 김남천, 「지식 계급 전향의 창조와 '고향' 주인공에 대한 감상」, 『조선중앙일보』, 1935. 7. 2.
11 정호웅, 「농민소설의 새로운 형식」, 정호웅 편, 『이기영』, 새미, 1995, 25쪽.

01□□□(□□)_□□□□□□16□ 14. 2. 10. □□ 3:19 Page 16

만치 변하였다. 정거장 뒤로는 읍내로 연하여서 큰 시가(市街)를 이루웠다. 전등, 전화가 가설되었다. C사철(私鐵)은 원터 앞뜰을 가로 뚫고 나갔다. 전선이 거미줄처럼 서로 얼기고 그 좌우로는 기와집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읍내 앞 큰 내에서 굉장하게 제방(制防)을 쌓았다. 상리(上里) 안골에서 내리지르는 물과 봉화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정거장을 휘도라서 원터 앞들을 뚫고 흐르다가 읍내 앞—정남쪽으로 와서는 한데 합쳐서 큰 내를 이루웠다. 세 갈래가 진 물목은 웅덩이처럼 넓게 팽겼다. 이 물목은 웅덩이처럼 넓개 팽겼다. 이 물목은 강물의 어구와 같이 여울이 졌다. 그래서 홍수가 질 때에는 물목이 벅차서 부근의 전답은 물론이요, 읍내 앞장거리까지 침수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를 굉장하게 방죽을 싸올리고 양쪽으로는 신작로의 가로수와 같이 '사쿠라'와 버드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정자를 새로 지었다. 그러나 그 동안 변한 것은 그뿐만 아니었다. 상리로 올라가는 넓은 뽕나무밭—개울 옆으로는 난데없는 제사공장이 높은 담을 두르고 굉장히 선 것이었다. 양회 굴뚝에서는 거문 연기가 밤낮으로 쏟아져 나왔다. 십여 년 전만 해도 이 밭 가운데는 뽕나무가 약간 심기고 한 구퉁이에는 잠업전습소(蠶業傳習所)라는 누에치는 강습소가 빈약한 널판집 십여 간 속에 붙어 있었다.

—이기영, 『고향』, 풀빛, 1980, 24쪽.

위의 인용을 토대로 '원터마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김희준이 동경에 있던 5년 동안 건설된 C사철(私鐵)은 당시 장호원선으로 불리던 안성선으로 판단되며, 이 철도가 가로지르는 원터 앞들은 현재의 단국대 천안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새로 쌓은 제방은 '방죽안'이 남아 있는 신부동 일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천안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을 전후해서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는 도시'[12]인데, 특히 『고향』의 배경이 되는 안서동, 신부동, 유량동 등이 그에 해당된다. 이

12 『천안시지』 상권, 천안시, 1997, 644쪽.

01□□□(□□)_□□□□□□16□ 14. 2. 10. □□ 3:19 Page 17

곳은 천안의 그 어떤 지역보다 근대문물이 빠르게 유입되었으며, 그만큼 일제의 수탈이 가혹하게 이루어진 공간이다. 이처럼 이기영의 『고향』과 「민촌」은 당대의 역사적·문화적 의의를 보다 분명히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안서동과 유량동에 이르는 지역은 이기영의 작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작품이 당대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뛰어나다. 그러나 이를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결한 동선과 시각적으로 거부감을 주지 않는 역사적 · 문화적 이미지를 부각, 역사문화자원 간의 관계가 긴밀해야 한다. 특히 「민촌」, 『고향』에서 묘사되는 지역성 및 역사성을 표현하고, 거리를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본구상	세부계획
이기영 문학의 의미 도출	이기영의 문학과 생애를 분석, 현재적 의미 도출 작품에 드러나는 공간을 통한 상징적 거리 조성
지역의 정체성 찾기	이기영의 작품에 내포된 역사적 · 문화적 · 교육적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 거리 조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거리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
지역의 활성화 유도	방문객의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거리 조성 이기영의 문학을 연구할 수 있는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도모, 공간 및 프로그램 확보
지역의 자연물 감상	천안의 주산인 태조산의 자연경관요소를 반영한 산책로 활용 천안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경관 및 스토리텔링 구축
지역의 공동체 형성	공동체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리 공간 조성 지역민과 방문객이 교류하는 프로그램 계획
지역을 위한 중·장기 계획	문학과 자연, 교육의 조화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거리 조성 천안의 비전과 미래를 반영하는 거리 공간의 프로그램 구축

〔표 3〕 민촌 이기영의 문학공간을 활용한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표 3〕과 같이 민촌 이기영의 문학공간을 활용하여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할 경우 문학성은 물론, 역사성·교육성을 두루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한데 묶고 역사적인 특성을 지역에

01□□□(□□)_□□□□□□16□ 14. 2. 10. □□ 3:19 Page 18

〔그림 2〕 JR동일본 관내 주요역사에 도입된 성별과 연령 인식해 음료 추천해 주는 자판기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촌 이기영의 작품에 드러나는 공간묘사를 활용, 특화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기영의 「민촌」과 『고향』을 토대로 하는 특화시설물은 일제강점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농촌문학의 기수로 평가되어 온 이기영의 작품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특히 터치스크린 방식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업들의 마케팅, 광고, 트레이닝 효과 및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공항이나 호텔, 병원 등 공공 장소에서 방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장치"[13]를 말한다. 특히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상업용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에 주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관리 플랫폼까지 종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관리 역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장점은 무엇보다 정보 습득이 용이하고, 방문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방문객들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물론 방문자와의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역사장소에서 관련된 역사인물과 사진을 찍고, 이를 SNS로 게시하도록

13 강현옥, 「디지털 사이니지를 위한 움직임과 인터랙션 디자인」,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3권 2호, 2013, 348쪽.

01□□□(□□)_□□□□□□16□ 14. 2. 10. □□ 3:19 Page 19

하여 이 문제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민촌 이기영 생가에서 신부동을 아우르는 탐방로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역사 탐방로와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주요 광장에서 벌어지는 예술,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더불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편 유량동, 안서동, 신부동 일대를 아우르는 민촌 이기영의 문학공간을 이미지를 활용해 가로를 조성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역사문화자원을 시기별로 연결하고, 이를 도시경관으로 조성하는 것은 역사와 문학이 공존하는 인상을 도시에 부여하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안전펜스로 활용한다면 도시 경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문학적·역사적·교육적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3.2. 독립운동사적지를 활용한 관광모델 도출

천안은 독립운동 사적지로 손꼽히는 지역이지만, 이를 활용한 역사기행 방안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현재 천안시청에서 추천하는 코스는 지역 간의 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단선적인 경로로 역사교육에 대한 흥미는 물론, 여행 자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천안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호국충절'의 이미지를 독립운동 사적지에 접목하되, 다양한 코스를 개발, 방문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천안의 독립운동 사적지 가운데 현장을 보존하고 과년 시설을 정비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목천읍과 병천면 일원, 특히 병천면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는 어린 나이에 서울 유학 중 귀향하여 아우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심문과정에서도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다

01□□□(□□)_□□□□□□16□ 14. 2. 10. □□ 3:19 Page 20

가 옥중 순국한 유관순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 애국정신이 그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천안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는 총 17개소로 현재 보존되었거나 조성되어 있지만, 체험형 여행에 가장 적합한 곳은 유관순의 충절이 내재된 병천 일대로 설정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이동녕, 조병옥, 유민식, 유창순 등의 독립운동가들과 김시민 홍대용 등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무관이 배출된 곳이며, 인접한 곳에 독립기념관과 천안박물관이 있어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여행지로 활용되어야 마땅하다.

소요시간	내용
반나절	· 유관순과 함께 하는 3·1독립만세운동 체험 · 아우내 3·1독립만세운동 준비지(現유, 매봉교회)→유관순열사봉화탑→유관순 생가 및 기념관→아우내 장터 3·1독립만세운동지→병천주재소 터
1일	주제 : 3·1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 독립기념관→목천기미독립만세운동기념비(現 , 목천초등학교)→이동녕 생가 및 기념관→목천기미독립운동기념비→아우내 3·1독립만세운동 준비지(現 매봉교회 전신)→아우내 장터 3·1독립만세운동지→매봉산 봉화지→유관순 생가→조병옥 생가
1박 2일	주제 : 독립운동을 위해 투신한 청년들을 찾아서 · 1일차 이종건 생가 터→유창순 집터 →유민식 집터→ 조병옥 생가→유관순 생가→매봉사 봉화지→아우내 장터→이동녕 생가 및 기념관→독립기념관 · 2일차 천안공립통학교 천안청년회 창립지(현, 천안초등학교)→직산금광 3·1독립만세운동지→양대주재소 터→입장 3·1독립만세운동지→광명학교 입장 3·1독립만세운동 준비지

〔표 4〕 천안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활용한 역사기행 코스(안)

천안시의 마스코트 '횃불낭자' 활용하여 역사기행 안내책자와 관광기념품 제작을 고려할 수 있다. 횃불낭자는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사상을 표현한 캐릭터로 역사문화관광의 성격에 적합하며, 추후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역사기행은 방문 장소와 관련인물, 사건을 알고 있을 때 여행의 효과가

01□□□(□□)_□□□□□□16□ 14. 2. 10. □□ 3:19 Page 21

배가 된다는 점에서 안내책자는 방문객의 요구와 취향에 맞는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자료이자, 여행에 대한 방문객의 이해를 돕는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는 문화적 가치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는 홍보물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 병천에 위치한 유관순 열사의 생가

한편 관광기념품은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간직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이 구입하기 쉬운 품목이고,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며, 관광지의 이미지를 환기할 수 있는 매개체다. 더불어 기념품을 통해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회상하고, 구전으로 기념품과 방문지를 주변에 소개함으로써 잠정적인 방문객 모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기행은 문화유산관광과 교육관광의 특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위락관광(慰樂觀光)과는 다르며, 역사에 대한 국가의 입장, 주변국과의 관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최근처럼 한일관계와 대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는

〔그림 4〕 천안시 마스코트 '횃불낭자'
출처 : 천안시청 홈페이지
(http://www.cheonan.go.kr/)

01□□□(□□)_□□□□□□16□ 14. 2. 10. □□ 3:19 Page 22

부정적인 감정을 환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역사기행은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획된 것이지, 반일 및 반북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역사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도하는 길이야 말로 국민들의 건전한 역사관 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개발할 때에는 상업적인 접근을 자제하면서도 체험활동을 극대화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신 방문객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공하면서, 이를 통해 교훈을 주기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한정하여 운영하며,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질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국가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민족이 당면한 문제를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일로, 특정시기에 한정될 수 없고 교과서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대상과 그에 대한 활용방안의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 실용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역사문화유적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자, 이를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민의 세대간·계층간 연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역사문화유적을 분석하고, 공동의 아젠다(Agenda)를 형성하며, 이를 후속세대에게 교육하여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관 정립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현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안은 역사적 사실과 역사문화유적에 비추어

01□□□(□□)_□□□□□□16□ 14. 2. 10. □□ 3:19 Page 23

보면 '호국충절'의 이미지가 더욱 강력하다. 이는 지역 출신 인물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대 농촌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은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예리한 지성이 빛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제들로 개발 방안을 모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천안시에서 '호국충절관광벨트화산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논외인 이기영과 접근성이 낮은 아우내 장터에 대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와 중·장기 전략, 실현 가능한 문화산업정책과 적재적소로의 효율적 투자는 산업의 쇄신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논의한 역사기행은 물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역사기행과 역사문화거리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인물, 문화유산은 물론 정신적인 측면까지 아우르고 있어 국가적·지역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지역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유산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지역 고유의 체험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이 시급하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 및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유명 문화유산은 물론, 지역 거유의 유산을 새로이 발견해 내고, 의미를 부여「재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졸고를 기점으로 여전히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조차 마련되지 못했지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역사문화유산이 지역에서 보다 가치를 갖고 논의가 개진되기를 바란다.

01□□□(□□)_□□□□□□16□ 14. 2. 10. □□ 3:19 Page 24

참고문헌

이기영, 『가난한 사람들』, 푸른사상, 2002.

정호웅 편, 『이기영』, 새미, 1995.

표일초, 「미륵신앙과 민중불교」, 한종만 편, 『한국 근대 민중불교의 이념과 전재』, 한길사, 1980.

『천안시지』 상권, 천안시, 1997.

공자원,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 잠재력개발 평가지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1.

강현옥, 「디지털 사이니지를 위한 움직임과 인터랙션 디자인」,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3권 2호, 2013,

심인선 · 김영순, 「경남의 청소년 통일안보의식 실태와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2013. 2.

오세경 외, 「공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전유형 분석」, 『국토계획』 36권 5호, 2001.

오재환 외, 「부산지역 문화자원 특성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09.

「고교생 10명중 7명 "한국전쟁은 북침"—서울신문「진학사 공동조사…김구선생 질문에 "어린이날 제정하신 분" 황당 답변도」, 『서울신문』, 2013.03.10.(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0500038)

「미국 역사가 숨쉬는 버지니아 "민속촌」, 『조선일보 애틀랜타』, 2013.1.16. http://atlantachosun.org/index.php「mid=search_data&category=70661&page=7&document_srl=103453

강원도 DMZ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dmzmuseum.com

미국 국립공원홈페이지(National Part Service) http://www.nps.gov/gett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sscmc.or.kr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auschwitz.org.pl

제주4·3평화공원 홈페이지 http://jeju43.jeju.go.kr/

천안시 홈페이지 http://www.cheonan.go.kr/

01□□□(□□)_□□□□□□16□ 14. 2. 10. □□ 3:19 Page 25

Abstract

Utilization Measures of Cultural Heritage Resources in Cheonan

Kang, Min Hee

This study, guessed the concept and practice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addition, to target the Cheonan, studied the hands-on history education scheme.

Rather than has remained in the past gone by simply in the process of accumulated long period, save in his various, and chang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many ways in the life of future generations and the current generation it is important in that it provides. And the Cheonan, to overcome the invasion of outside influence, ethnic ruins that have been working hard for independent voluntary ethnic often. So, it is a region that can help in the understanding of ethnic consciousness and safety literary space is located.

Therefore, awareness of security and independence of the nation, review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Cheonan region, and to discuss the use of measures, it is possible to find a way that everyone can understand fun and easy spirit and identity of the nation and even it can be said that it's.

01□□□(□□)_□□□□□□16□ 14. 2. 10. □□ 3:19 Page 26

주제어: 역사문화자원(Cultural Heritage), 역사인물(Historical person),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문학콘텐츠(Literature contents), 문화유산(Heritage), 천안(Cheonan), 유관순(Yu Gwan-sun), 이기영(Lee Gi-young)

논문 접수일 2013. 11. 08. | 논문 심사일 2013. 11. 22. | 게재 확정일 2013. 12. 13.